

兒童의 乳齒管理狀態에 對한 保護者 教育程度 및 看護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附屬病院

崔 哲 熙

THE STUDIES OF PATIENT-PARENT'S INTERESTS IN NURSING OF DECIDUOUS DENTITION AND DEGREE OF PATIENT PARENT'S EDUCATION

Choi Cheul Hee, B.S.

Dept. of Nursing, Infirmary of Dent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Proper and correct tooth brushing method, frequency, and restriction of sugar contained diets are the most important to prevent dental caries of the deciduous teeth and maintain good oral health.

Therefore, the author executed enquete axamination on 324 patients parents who were admitted to Dept. of Pedodontics of Dental College, S.N.U, which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ents education and in erests in managements of deciduous dentition, oral hygiene and oral health.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ore patients parents were educated, the more active attitude was seen.
- 2) Parents who exactly know the etiology of deciduous dental caries revealed; 57.1%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d parents group, 78.6% in middle school, 81.2% in high school, 87.2% in college, respectively.

This shows correct estimation of oral health is increasded in proportion to degree of parents education.

- 3) Parents instruct his children to brush twice of more a day; 42.9%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d parents groups, 42.9% in middle and high school, 82.0% in college, respectively.
- 4) Parents inspect their childrens' oral field frequently; 42.9% in elementary, middle school graduated parents group, 79.2% in high and college, respectively.
- 5) When dental emergency happens, parents visit dental clinics; 35.7% in eementary school graduated parents groups, 57.0% in middle school, 83.4% in high, 83.7% in college, respectively.

著者が 直接考案한 說問紙를 使用하여 小兒齒科에 來院한 患者保護者에게 提示하여 記錄하도록 하였다.

— 目 次 —

- I. 緒 論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III. 研究成績
- IV. 總括 및 考察
- V. 結 論
- 參考文獻

III. 研究成績

A) 研究對象의 特性

1) 研究對象의 年齡과 教育程度는 表 I 과 같다.

〈表 1〉 研究對象者 年齡 및 教育程度分布

연령	응답자	아 버 지	어 머 니	계 (%)
—29歲		2	36	38(11.7)
30歲—34歲		4	132	136(42.0)
35歲—39歲		2	94	96(29.6)
40歲—44歲		4	30	34(10.5)
45歲		2	18	20(6.2)

교육정도	응답자	아 버 지	어 머 니	계 (%)
국 민 학 교			28	28(8.6)
중 학 교			28	28(8.6)
고 등 학 교			96	96(29.6)
대 학 교		14	158	172(53.2)
계 (%)		14(4.3)	310(95.7)	324(100.0)

應答者는 어머니 95.7% 絶對多數를 차지했고 아버지 4.3%였다. 年齡別로는 30歲~34歲가 42.0%로 第一 많았고, 35歲~39歲 29.6%, 29歲以下 11.7%, 40歲~44歲가 10.5%, 45歲以上이 6.2%順이며, 全體의으로 30歲~39歲까지가 71.6%나 되었다.

教育程度는 大學學歷群이 53.2%로 第一 많았고 高等學校學歷群이 29.6% 中學校學歷群이 8.6%, 國民學校學歷群이 8.6%順으로 應答者의 教育水準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B. 保護者의 管理態度에 對한 調査成績

1) 乳齒에 發生하는 齒牙齲蝕症을 豫防하거나 早期治療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사람은 全應答者中 98.1%로 教育水準 關係없이 거의 大部分 이었다(表 2).

2) 처음 小兒齒科를 來院한 理由는 齲蝕齒治療 目的이 50.6%, 齒痛解消의 目的 37.0%, 齒列이 고르지 못해서 8.1% 弗素塗布 目的이 4.3%順이다. 父母의 學歷이 高等學校卒業以上에서 齲蝕齒治療 目的이 42.5%, 齒痛解消 目的이 31.1%, 其他가 26.4%順이다(表 3).

3) 診察後 醫師가 勸하는 治療를 모두 받은 경우는,

I. 緒 論

乳兒期에 생긴 甚한 齲蝕齒는 永久齒의 發育에 影響이 至大하므로 後에 顔面變形을 招來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脉로는 血液內에 細菌感染으로 여러가지 種類의 全身疾患을 誘發시키는 重要한 要件이 될 수도 있다¹⁾. 그러므로 兒童이 健全한 乳齒를 保存한다는 것은 外貌뿐 아니라, 저작은 勿論 言語를 通한 意思表現에도 大端히 重要하며²⁾ 보다 좋은 永久齒列을 誘導하는데도 꼭 必要하기 때문에 乳齒를 早期喪失하게 되는 主要原因인 齒牙齲蝕症을 豫防하고, 早期治療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齒牙齲蝕症을 豫防 및 早期治療하는 데는 첫째 家庭에서의 올바른 口腔管理와 둘째로 專門醫에 依한 定期的인 口腔檢査를 들 수 있다³⁾. 保護者들과 兒童들에게 어째서 口腔保健이 重要하고, 實質의이면서 有効한 結果를 얻을 수 있고, 苦痛代身 기쁨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을 教育시키자면 가장 먼저 強調해야 할 事實은 口腔疾患의 管理 問題이다. 家庭 口腔保健管理 方法은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紹介 되었는데 間食으로서의 雪糖類 制限과 이닦기를 들 수 있다. 勿論 齒牙齲蝕症의 豫防과 早期治療도 重要하겠지만 乳齒 治療後에 家庭에서 保護者들의 管理도 重要하다고 생각되어, 子女들의 乳齒管理狀態와 保護者의 教育程度를 把握하여 좀더 積極的으로 兒童의 口腔保健管理에 臨하도록 啓蒙하는데 目的을 두고 研究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 對象

서울大學校 齒科大學病院 小兒齒科에 來院한 患者 中 治療가 거의 끝나는 患者 保護者 324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2) 研究 方法

설 문 지

1. 보호자

() 부 () 모

2. 년 령

3. 교육정도

() 국졸 () 중졸
() 고졸 () 대졸

4. 아동의 유치에 발생하는 우식치는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필요하다 () 필요없다 () 모르겠다

5. 소아치과를 처음 來院하시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요?

() 아프다가에 () 아프지는 않지만 충치가 있는 것 같아서
() 불소도포 해주려고 () 치열이 고르지 못해 치료 받으려고

6. 진찰을 받고 의사선생님의 원하는 치료를 모두 받도록 하셨는지요?

() 예 () 아니요

설문 (6)에 아니요라고 하신분은 답해 주시요,

() 시간 제약 때문에 ()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 경제사정때문에 () 기 타(이유)

7.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우식치의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음식물이 끼어서 () 벌레가 치아를 파먹어서
() 설탕을 많이 먹어서 () 치솔질을 잘하지 않아서
() 모르겠다

8. 어린이들에게 치솔질을 하루에 몇번 하도록 하고 계신지요?

() 아침 1회 () 가침 저녁 2회
() 아침 점심 저녁 3회 ()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4회

9. 유치 우식치 치료후에 보호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칫솔질을 자주시키고 설탕을 피하도록 한다.
() 정규적으로 치과에 來院한다.
() 관심없다.

10. 유치 발치후에 간격 유지 장치를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꼭 필요하다. () 좋다고 생각한다.
() 필요치 않다. () 모르겠다.

11. 보호자께서는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치아를 수시로 관찰하고 계시는지요?

() 자주 관찰한다.
() 관찰하지 않는다.
() 아프고 하면 관찰한다.

12. 갑자기 유치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할때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집에서 발치해주고 아프면 진통제만 사먹인다.
()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 진통제만 먹인다.
() 그대로 버려 둔다.

〈表 2〉 乳齒에 發生하는 齲蝕을 미리 豫防하거나 早期治療의 必要性에 對한 應答

교육정도	응답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
국민학교		28(100.0)			28(100.0)
중학교		22(78.6)	2(7.1)	4(14.3)	28(100.0)
고등학교		96(100.0)			96(100.0)
대학교		172(100.0)			172(100.0)
계(%)		318(98.1)	2(0.6)	4(1.3)	324(100.0)

〈表 3〉 表口腔管理를 爲해 처음 小兒齒科를 來院한 理田

교육정도	응답	아파서	우식치치료	불소도포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계(%)
국민학교		8(28.6)	14(50.0)		6(21.4)	28(100.0)
중학교		10(35.7)	12(42.9)		6(21.4)	28(100.0)
고등학교		42(43.8)	46(47.8)	4(4.2)	10(5.8)	96(100.0)
대학교		60(34.9)	92(53.5)	10(5.8)	10(5.8)	172(100.0)
계(%)		120(37.0)	164(50.6)	14(4.3)	26(8.1)	324(100.0)

〈表 4〉 醫師가 勸하는 治療의 受諾與否

교육정도	응답	應 答 者	不 應 者	계(%)
국민학교		28(100.0)		28(100.0)
중학교		28(100.0)		28(100.0)
고등학교		93(96.9)	3(3.1)	96(100.0)
대학교		172(100.0)		172(100.0)
계(%)		321(99.1)	3(0.9)	324(100.0)

〈表 5〉 齒牙齲蝕症 原因에 對한 應答

교육정도	응답	정답자	오답자	계(%)
국민학교		16(57.1)	12(42.9)	28(100.0)
중학교		22(78.6)	6(21.4)	28(100.0)
고등학교		78(81.2)	8(18.8)	96(100.0)
대학교		150(87.2)	22(12.8)	172(100.0)
계(%)		266(82.1)	58(17.9)	324(100.0)

〈表 6〉 어린이의 칫솔질 回數

교육정도	응답	아침 (1회)	아침, 점심 (2회)	아침, 점심, 저녁 (3회)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4회)	계(%)
국민학교		16(57.1)	12(42.9)			28(100.0)
중학교		16(57.1)	10(35.8)	2(7.1)		28(100.0)
고등학교		36(37.5)	54(56.3)	2(2.1)	4(4.1)	96(100.0)
대학교		34(19.8)	130(75.6)	8(4.6)		172(100.0)
계(%)		102(31.4)	206(63.6)	12(3.7)	4(1.3)	324(100.0)

應答者中 99.1%이며 받지못한 경우는 0.9%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教育程度에 關係가 없었다(表 4).

4) 어린이들에게 發生하는 齒牙齲蝕症의 原因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應答者의 82.1%이고, 誤答者가 17.9%이다. 大學學歷群에서 87.2%가 올바르게 알고 있으므로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올바르게 알고 있다(表 5).

5) 어린이들에게 칫솔질을, 아침 저녁 2회 하도록 하는 사람이 應答者의 63.6%로 第一 많고, 아침 1회가 31.4%, 3회 이상이 5.0% 順으로 高等學校歷群以上에서 하루에 2회 이상 칫솔질 하도록 하는 사람이 61.1%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教育水準이 높아질 수록 口腔管理를 잘 하고 있다(表 6).

<表 7>

乳齒治療後에 保護者의 管理態度

교육정도	응답 잇솔질을 자주하고 설 탕류를 피한다.	정기적인치과태원	관심없다	계(%)
국민학교	11(33.3)	8(23.6)	9(32.1)	28(100.0)
중학교	24(85.8)	2(7.1)	2(7.1)	28(100.0)
고등학교	52(54.1)	30(31.8)	14(4.6)	96(100.0)
대학교	116(67.4)	48(28.0)	8(4.6)	172(100.0)
계(%)	203(62.6)	88(27.2)	33(10.2)	324(100.0)

<表 8>

교육정도	응답 꼭 필요하다	좋다고 생각한다	필요치 않다	모르겠다	계(%)
국민학교	8(28.9)	18(64.3)	2(7.1)		28(100.0)
중학교	8(28.6)	14(50.0)		6(21.4)	28(100.0)
고등학교	32(33.3)	54(56.3)		10(10.4)	96(100.0)
대학교	72(41.9)	86(50.0)		14(8.1)	172(100.0)
계(%)	120(37.0)	172(53.1)		30(9.3)	324(100.0)

<表 9>

家庭에서의 어린이들의 齒牙觀察狀態

교육정도	응답 자주 관찰한다	아프다고하면 관찰한다	관찰하지 않는다	계(%)
국민학교	12(42.9)	16(57.1)		28(100.0)
중학교	12(42.9)	12(42.9)	4(14.2)	28(100.0)
고등학교	76(79.2)	20(20.8)		96(100.0)
대학교	136(79.1)	36(20.9)		172(100.0)
계(%)	236(72.8)	84(26.0)	4(1.2)	324(100.0)

6) 乳齒 齧蝕齒治療後에 保護者의 管理狀態는 잇솔질을 자주시키고 雪糖類의 間食을 制限하도록 한다가 應答者中 62.6%이고 定期的인 齒科來院이 27.2% 關心없다의 10.2%順이다. (表 7)

7) 乳齒拔齒後 間隔維持裝置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應答者中 53.1% 第一 많고 꼭 必要하다가 37.0%, 모르겠다 9.3%, 必要치않다 0.6%順이다.

8) 保護者들이 家庭에서 어린이들의 齒牙를 자주 觀察한다면 應答者中 72.8% 아프다고하면 觀察한다, 26.0% 觀察하지 않는다, 1.2%順으로 高等學校學歷群에서 79.2% 大學校學歷群에서 79.1% 觀察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表 9).

9) 갑자기 乳齒가 흔들리고 아플때 應急處置는 病院으로 가는사람이 77.2% 第一 많았고, 집에서 拔齒해주고 鎮痛劑 먹이는 사람이 16.7%, 鎮痛劑만 먹임이 4.0% 그냥 내버려 준다 2.1%順이고, 國民校學歷群에서

집에서 應急處置 해주는 사람이 64.3%이며 中學校學歷群以上에서 病院을 찾는 사람이 各各 57.1%, 83.4%, 83.7%인 바 教育水準이 높아질 수록 病院을 찾는 率이 높아지고 있다.

IV. 總括 및 考察

兒童의 乳齒에 發生하는 齒牙齧蝕症의 豫防이나, 初期治療에 對하여 應答者中 98.1%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李²⁾의 調査結果인 92.9%와 거의 一致된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다. 保護者들이 子女 때문에 처음 小兒齒科에 來院하게된 理由는 齧蝕治療의 目的이 50.6%, 齒痛解消의 目的이 37.0%, 其他 12.3%인데 李²⁾의 調査成績은 齧蝕齒治療의 目的이 42.2% 齒痛解消의 目的이 35.4%인바 著者의 調査成績에서 齧蝕齒治療의 目的과 齒痛解消의 目的이 多少나마 많은은 著者의 調査對象이

〈表 10〉

갑자기 乳齒가 흔들리고 아플때 應急處置

교육정도	응답 집에서 진통조 떡입	발치하고 병원으로 간다	진통조 떡입	그냥 내버려 둔다	계(%)
국 민 학 교	18(64.3)	10(35.7)			28(100.0)
중 학 교	4(14.3)	61(57.1)	4(14.3)	4(14.3)	28(100.0)
고 등 학 교	10(10.4)	80(83.4)	3(3.1)	3(3.1)	96(100.0)
대 학 교	22(12.8)	144(83.7)	6(3.5)		172(100.0)
계(%)	54(16.7)	250(77.2)	13(4.0)	7(2.1)	324(100.0)

小兒齒科에 來院하여 治療를 받고 있는 患者 保護者를 對象으로 했기 때문인것 같다. 李²⁾나 著者의 對象이 높은 教育程度의 保護者 인데도 처음 齒科來院 理由가 齒痛 解消의 目的인 사람이 37.0%, 35.4%인 것을 考慮할 때 李²⁾나 著者의 調査에 應한 保護者가 亦是 子女의 口腔 保健 管理를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繼續의이고도 效果의인 方法으로 그들을 啓蒙하여, 齒痛 解消의 目的이 아니고 豫防 및 早期治療를 爲하여 보다 많은 保護者들이 齒科에 來院하도록 指導 啓蒙 할 必要가 있다고 한 李²⁾의 主張에 同感하는 바이다. 齒科醫師가 勸하는 治療에 應한 사람은 99.1%로 거의 全部라고 생각하며 李²⁾의 調査에서는 應한 사람이 86.9 인것에 비하여 著者의 調査에서 높게 나타났것 또한 小兒齒科에 來院하여 治療가 거의 끝나는 患者保護者를 對象으로 했음인 것 같다. 齒牙齶蝕症의 發生에는 여러 가지 要素가 複雜하게 作用하고 있으므로 發生機傳과, 豫防에 관한 見解도 구구하나, 現在 가장 有力한 學說로는 Miller⁴⁾의 化學細菌說, Gottlieb⁵⁾의 단백질說, Schatz와 Martin⁶⁾의 단백질용해說, Chelation說이 있다. 이 중 어느 學說에 立却하여 齒牙齶蝕症을 豫防하고 管理하더라도, 口腔內 衛生을 清潔하게 維持시키는 것이 가장 基本的이며 效果의인 方法이라 하겠다. 齒牙齶蝕症에 對하여 一部 學者들은 文化人의 疾患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雪糖成分의 攝取를 制限하고 칫솔질을 올바르게 徹底히 하고 間食을 制限하며, 불소化合物의 局所塗布와 上下水道의 弗素化 같은 齶蝕豫防 措置를 取하면 相當한 程度의 豫防이 可能하므로, 確實히 齒牙齶蝕症은 文化人의 疾患이 아니라, 無知와 無節制 게으름, 等으로 惹起되는 疾患이라는 金⁷⁾의 主張은 根據가 있다고 생각된다. 齒牙齶蝕症의 原因을 묻는 說問에서 全應答者의 82.1%가 올바르게 알고 있고, 大學學歷群에서 87.2%나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原因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 李²⁾의 調査에서는 68.7%가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著者의 對象에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또한 著者의 對象이 小兒齒科에 來院한 患者保護者를 對象으로 했음인

것 같다. 어린이들의 하루에 칫솔질 回數는 2回以上이 66.6%이다. 高等學校學歷群 以上에서 하루에 2回以上이 61.1%를 차지하였고 國民學校와 中學校學歷群에서 42.8%인바 任⁸⁾의 報告에서의 農村住民들은 2回以上이 27.8%로, 아직도 教育水準이 낮은 學歷群에서 口腔 保健管理가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乳齒治療後에 管理態度에 있어서는 칫솔질을 자주 시키고 雪糖類를 制限 한다는가 62.6% 第一라고 定期的인 齒科來院이 27.2%이다. 칫솔질과 雪糖類 制限도 重要하지만 肉眼으로 初期 齶蝕齒를 保護者가 찾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적어도 6個月에 한번씩은 반드시 齒科에 來院하여 徹底한 檢査를 받도록 하는 것도 重要하다. 一端 治療가 끝났다고 放心해서는 안되겠다. 定期的인 齒科來院이 27.2%인것으로 볼때 이에 對한 좀더 積極인 管理態度가 必要하다. 乳齒拔齒後에 間隔維持裝置에 對하여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53.1% 꼭 必要하다 37.0% 大部分 좋다고 생각은 하나 꼭 必要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이는 大概 保護者가 齒牙가 喪失 되었을 境遇에 各 齒牙가 占領하고 있던 間隔을 維持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保護者들이 家庭에서 子女들의 齒牙를 어느程度 觀察하고 있는지의 如하는 자주 觀察한다고 72.8%이고 高等學校學歷群에서 79.2% 大學學歷群에서 79.1%로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자주 觀察하고 있다. 갑자기 乳齒가 흔들릴 때에 病院을 찾는 사람이 77.2%, 大學學歷群에서 83.7%로 이 또한 教育水準과 一致함을 알 수 있다. 保護者를 對象으로 口腔保健에 對한 啓蒙을 하는데 있어서 李²⁾의 報告에서 밝힌바와 같이 各 保護者의 教育程度에 알맞는 方法을 擇하여 漸進的으로 啓蒙하는 것이 가장 效果의이라는 Hollander⁹⁾의 報告와 一致한다고 하겠다. 또한 看護學의 面에서 이러한 結果를 綜合하여 볼 때, 齒科에 근무하는 看護員들은 齒科醫師, 口腔衛生사 등과 더불어 口腔保健 啓蒙에 對한 充分한 知識을 갖고 患者나, 保護者들에게 口腔疾患의 豫防과 早期治療 및 治療後의 管理를 徹底히 하도록 啓蒙할 必要가 있다.

順位로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病院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V. 結 論

著者は 서울大學校 齒科大學病院 小兒齒科에 來院한 患者保護者中 治療가 거의 끝나는 患者保護者 324名을 對象으로 子女의 乳齒管理狀態에 對한 保護者의 教育程度와의 關係를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保護者의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子女의 乳齒管理에 臨하는 態度가 積極적이 었다.
- 2) 어린이들에게 發生하는 齒牙齦蝕症의 原因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國民學校學歷群에서 57.1% 中學校學歷群에서 78.6% 高等學校學歷群에서 81.2% 大學校學歷群에서 87.2%로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 3) 어린이들의 칫솔질 回數는 하루에 2回以上이 國民學校學歷群에서 42.9% 中學校學歷群에서 42.9% 高等學校學歷群에서 62.5% 大學校學歷群에서 80.2% 順位로 나타났다.
- 4) 保護者들이 家庭에서 어린이들의 齒牙를 자주 관찰하는 사람이 國民學校와 中學校學歷群에서 42.9% 高等學校學歷群에서 79.2% 大學校學歷群에서 79.1% 順位로 나타났다.
- 5) 갑자기 乳齒가 흔들리고 아플때 病院을 찾는 사람은 國民學校學歷群에서 35.7% 中學校學歷群에서 57.1% 高等學校學歷群에서 83.4% 大學校學歷群에서 83.7%

參 考 文 獻

- 1) Joseph C. Muhler 原著, 박기철 편역 : 생활인의 齒科의학 p. 13, p. 75, p. 49, 1967.
- 2) 李元鏞 : 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태도 및 지식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Vol. 2, No., 1, 1975.
- 3) 朴光진 : 치아우식 發生에 대한 tooth brushing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 : 625, 1970.
- 4) Miller, W.D. : New theories concerning decay of teeth. D. Cosmos, 47 : 1293, 1905.
- 5) Gottlieb, B. : Dental caries. J. of Dent. Research, 23 : 141, 1944.
- 6) Schatz, A. and Martin J.J. : Keratin utilization by oral microflora. proc. penn. Acad. Soc., 29 : 48, 1955.
- 7) 金周煥 : 예방치과학계의 당면 과제, 대한치과협회지, 8 : 493, 1970.
- 8) 任東祐等 : 농촌주민과 국민학교 교사의 구강보건 관리 실태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 : 625, 1970
- 9) Hollander, L.N. : Basic considerations in education the patient to modern dental procedures. D. clin. N. America, p. 81, 1961.

서울市 認定 第40號

京東齒科技工所

代 表 徐 大 東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 4街 146

☎ (62) — 5749